

어머니의 신체와 연결성

-구비설화에 나타난 ‘어머니’의 용인과 배제 양상을 중심으로

강성숙

인제대 리버럴아츠칼리지 교육학부 부교수

잘 읽고 잘 쓰는 연구소 소장

목차

- 1 서론
- 2 설화 속 어머니, 용인과 배제의 양상
 - 2.1 아들 낳는 신체 칭송과 규범적 신체의 확장
 - 2.2 효자 만들기로 도구화되는 신체
 - 2.3 가족주의의 무한배제, 통제되는 신체
- 3 어머니 신체와 설화의 징후적 문제제기
 - 3.1 아들 낳는 신체의 무한 용인과 가부장제의 자가당착
 - 3.2 돌봄(돌보기/돌봄 받기)에서 놓여나기, ‘편협한 가족주의’ 벗어나기
 - 3.3 연결되지 않음으로 연결되기
- 4 결론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389).

이 논문은 2022년 12월 16일 젠더·어팩트연구소 제4회 국제학술대회 ‘연결 신체학의 모색: 연결성의 이론적 융합과 학제적 실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야기 수용 측면에서 해석의 관점을 제공해주신 지정토론자 최기숙 선생님과 신체(성) 및 가족주의 개념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본고는 연결신체 이론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구비설화에 보이는 어머니의 신체에 주목해 모성 또는 모성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구비설화에서 어머니-신체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구현됨을 확인했다. ‘손병사 모친’ 설화에서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일 때, 규범적 모성(여성)성의 틀을 벗어나는 형태까지 허용된다. 효자 아들을 만들어내는 도구적 신체로서의 병든 어머니는 제한적으로 용인되는데, 효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병든 어머니 신체는 딜레마 상황에서 효성의 진위, 정도를 규명하는 도구가 된다. ‘어머니 폭로로 잃은 명당’에서 보이는 어머니-신체는 가족주의에 위협이 되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비난과 배제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어머니의 신체를 아들 낳는 도구로만 인정하는 태도나 돌보는 대상으로서만 제한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어머니의 몸을 제한하는 부계 혈통 영속의 기획은 이러한 설화의 존재 자체로 이미 도전받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편협한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의 경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연결성을 모색하는 설화의 해결 방식은 가부장제의 기획을 단절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문핵심어: 구비설화, 어머니, 신체, 규범, 용인, 배제, 가족주의, 대안적 신체, 연결성

1 서론

문학에서 ‘어머니’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상은 드물 것이다. 누구든 어머니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어머니는 애초부터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이어서, 그 존재가 온전한 개별적 주체로 드러나거나 해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문학사의 처음을 여는 여성 인물인 웅녀의 주요 행위 역시 기자정성과 출산이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여성이 어머니로서 자식, 가족 관계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설화 속 ‘어머니’의 모습을 고찰한 최근 연구는 주로, 어머니의 정체성, 주체성을 읽어내고자 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모성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인경은 ‘어머니’ 개념을 ‘아들이나 딸을 가진 여자’라는 의미로 규정하며 구비설화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에서 여성의 자아정체성을 규명하고 주체로서의 어머니를 조명하고자 했다.¹ 정경민 역시 예전의 모성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어머니의 주체성에 주목했다. 모성은 사회·역사적 구성물로서, 이는 개인의 욕망과 결합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경민은 어머니의 자기 정체성 또한 그 주체의 지향(‘이념’과 ‘욕망’)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²

‘모성’을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확보하고, 모성의 주체적 모습을 찾아내고자 한 최근 연구 성과는 여성담론을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여성의 주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설화가 내포하는 여러 층위의 문제의식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설화가 다루는 여성 주체의 행위는 어떤 측면에서 옹호되지만 어떤 층위에서는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다성성을 고려하며 전승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존재 조건이나 역할 수행과 관련한 실천적인 대안 모색의 문제는 아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고는 ‘어머니’에게서 모성, 모성성, 여성 주체의 가능성 등을 발견해낸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구비설화에서 어머니가 구체적 신체로 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여 실제로 어떤 신체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지, 모성의 찬양이나 혐오가 구성되는 방식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주의의 대안적 모습을 다루는 설화를 통해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모성성을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이인경은 ‘어머니’가 자식의 관점에서 희생적, 헌신적 타자로서만 서술, 찬양되는 점을 경계하면서 자식에 대한 맹목적 희생은 과도한 기대와 집착의 ‘납근적 모성’이라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자식과 결별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결합하는 어머니에게서 주체성을 읽어내려 했다.(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어머니」, 『국어국문학』 제 131집, 국어국문학회, 2002, 343-372쪽.)

2 정경민, 「구비설화의 어머니 형상을 통해 본 모성과 여성 인식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2015, 1-225쪽.

설화 속 어머니의 신체는 개별적인 자연적 실체 내지 본질적 고유성으로서의 실재와는 거리가 있다. 어떤 신체가 더 중요한지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사 안팎에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양한 신체를 산출하고 통제하는 규범의 강제에 의해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³ 본고는 설화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주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여성이란 본질도 아니며 본질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여성”은 형이상학의 담론으로부터 배제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질”이 형태화되는 과정에서, 즉 ‘어머니’가 서사 내에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권력관계를 거쳐 사회적 신체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의 지배적 담론은 어머니의 본질을 배제해왔을 가능성이 크며, 그리하여 엄밀히 여성적인 것-어머니의 실체는 명명될 수 없는 상태로 남겨 되었다.⁴ 어머니의 본질적 성격이 파악되기 불가능하다고 할 때, 설화는 어머니의 실재와 인식 사이 어떤 지점에서 어머니를 형상화하고 있는지 따라가며 살필 수밖에 없다.

설화는 그 장르적 특성상,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이 내면화한 규범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설화 속 ‘어머니’ 역시 규범적 강제가 개입된 물리적 신체로 읽을 때, 구체화된 사회적 실체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신체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어떤 신체는 배제되는지, 즉 가부장제 권력과 규범 하에서 용인되는 신체와 그렇지 못한 신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래 ‘어머니’라는 존재가 지닌 자녀와의 관계, 연결이 어떻게 차단되고 생성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설화가 어머니의 신체를 어떻게 용인, 허용, 배제하는가 살피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신체를 구성하는 규제적 규범의 자가당착을 발견해내고, 규범 또는 탈규범이 아닌 대안적 신체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3 버틀러는 모성적 특징 역시 육체적 양태들의 문화적 인위적 구성 형태로 파악한다. 규범은 애초 다양하고 개별적이었을 모성-어머니들을 하나의 담론 속에 정교화시키는데, 설화는 규범을 수행적으로 반복하는 어법인 동시에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양태를 함께 담고 있는 대상으로 본다. 육체의 물질성과 권력과 주체, 육체와 규범에 대한 시각은 주디스 버틀러의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김윤상 역, 인간사랑, 2003, 1-519쪽.) 참고.

4 위의 책, 80-92쪽 참조.

2 설화 속 어머니, 용인과 배제의 양상

구비설화에서 용인되는 대표적 어머니-신체는 ‘훌륭한 아들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라 할 수 있다.⁵ ‘훌륭한 어머니’란 ‘훌륭한 아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그런데, 설화에서 훌륭한 아들을 낳는 어머니는 규범적 여성의 틀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아들 낳기—를 훌륭히 수행하기만 한다면 규범적 모성(여성)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태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정승 낳을 여자’, ‘손병사 출생담’ 유형 설화에서 보이는 강력한 어머니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훌륭한 아들을 낳는 것만으로 탈규범적 행동을 용인받는다. 다음으로, 효자 아들을 만들어내는 도구적 신체로서의 병든 어머니를 들 수 있다. 효행담의 어머니는 늙고 병들었지만 아들을 효자로 만들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 속에서 병든 어머니 신체는 제한적으로나마 용인된다.⁶ 마지막으로 ‘어머니 폭로로 잃은 명당’ 유형 설화에서 보이는 어머니-신체는 가족주의에 위협이 되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비난과 배제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진실을 발설한 것만으로 ‘죄’를 얻어 ‘남’으로 치부되는 어머니는 부계 가족을 유지하는 방식이 여성(어머니)를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부정의한 것임을 드러내는 기제로 작동한다. 2장에서는 설화의 문면에서 표면적으로 용인, 배제되는 어머니의 신체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겠다.

2.1 아들 낳는 신체 칭송과 규범적 신체의 확장

밀양지역의 인물 손병사에 관한 설화는 손병사보다 그 어머니 이야기가 더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설화 속 손병사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인정되는 관습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인다. 가문과 마을의 규범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가의 규범과 관습에 정면으로 맞서 대결하는 인

5 정경민은 이 유형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이념-육망’ 통합형으로 분류해 ‘소신으로 큰 인물 낳은 어머니’ 항목에서 논의했다.(정경민, 앞의 논문, 75-80쪽.)

6 ‘효불효’ 설화, ‘아이 죽인 노모’ 설화에서 ‘어머니’는 딜레마 상황에서 효성의 진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물이다. 이러한 독특한 행보는 손병사 어머니를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비범한 인물로 인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손병사 어머니가 시집와서 사당을 없앴다’는 모티프는 가장 많은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당 철폐 행위는 ‘손병사 어머니가 신행을 마 음대로 왔다’, ‘임신한 손병사 어머니 배 위로 지네가 지나갔다’, ‘손병사 어머니 가 치마를 벗거나 큰대자로 잤다’, ‘손병사 어머니가 아무데서나 오줌을 싼다’, ‘손병사 어머니가 오줌 누는 소리가 컸다’와 같은 모티프와 더불어 전승의 핵심 적인 요소가 된다.⁷

손씨 집안 대대로 모시는 사당을 없앤 손병사 모친의 행위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의 출산과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손병사 어머니가 사당을 불태우 자 사당의 혼령은 그 아들을 잡아간다. 자식을 잃는 일은 ‘어머니’로서 감내하기 가장 힘든 시련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가 죽는 이유를 사당의 귀신과 연결시켜 이해한 반면, 손병사 모친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귀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귀신을 물리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귀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자손을 낳는 훌륭한 어머니의 몸에 관한 것이다. 이 설화를 전승하는 이들은 병사를 낳은 어머니의 자질을 언급하며 그 훌륭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기존의 여성 규범과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문제적이다.

아, 그거는-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참, 병사 놓을 참, 어머니가 시집을 올 때, 좀- 말을 할라 카면 좀- 뭐 어떠한 그기- 있는데-, 좀, 여자-지만 은 대담한 고오, 말하자면은 뭉-강, 여자지만은, 여자다운 게 아이고 남자의 성격이라도 아주- 참, 예- 그 뭐라카꼬? 대담하는, 그런 성품을 가

7 손병사 이야기의 모티프와 전승 지역은 황은주, 「손병사 이야기 연구-밀양 산내·산외면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7, 18-20쪽 참조. ‘임신한 손병사 어머니 배 위로 구렁이가 지나갔다.’는 모티프 내용은 채록 내용을 검토한 후, ‘구렁이’를 ‘진대’ 즉 ‘지네’로 바꾸었다. 손병사 어머니 설화 자료 목록과 『구비문학 대계』 미수록 자료는 위 논문을 참조했다.

지셨든 모양이지요.⁸

어머니로서 여성은 훌륭한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토대였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처신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세밀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잠자며 었디지 말며’, ‘더워도 치마를 걷지 말고’, ‘가려워도 굽지 말며’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능적 무의식적 차원의 제한이나 규제까지 강요되었다.⁹ 참고 견디는 것이 부녀자의 미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손병사 어머니의 행위는 규범적 처신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위 설화 구연자 손정호 씨(남, 75세, 밀양 산외면 다죽 다원마을)는 손병사 어머니 이야기를 대단히 신중한 태도로 구연하고 있다.

“그- 참”, “좀- 말을 할라 카면 좀- 뭐 어떠한 그기- 있는데-”, “좀”, “말하자면은 뭐-강”, “참, 예- 그 뭐라카꼬?” 같은 언술에서 보이듯이 손병사 어머니가 보여주는 규범 파괴적 모습과 훌륭한 아들의 훌륭한 어머니라는 결과론적 주제 사이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구연자는 끊임없이 머뭇거리며, “여자-지만은 대담한”, “여자치만은, 여자다운 게 아”인 성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손병사 모친은 여성답지 않고, 오히려 “남자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인데, 그녀는 규범에 부합하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훌륭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훌륭한 여성(어머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강요되는 덕목과 어머니로서 주창되는 대담한 자질은 여전히 모순적이다. 손병사 모친의 비범한 모습 역시 긍정적 자질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¹⁰

규범적 여성의 모습과 어머니의 자질로 용인되는 담대한 신체 사이의 간극은 극히 모순적이지만, 훌륭한 아들을 낳아 기르는 데 필요한 자질이라면 허용되는 것이다. 규범적 범주를 벗어나는 여성의 모티프는 ‘손병사 어머니’ 유형(『한국

8 위의 논문, 48쪽 재인용.

9 ‘밥 먹을 때 국을 건더기를 건져(젓가락으로) 먹지 말 것’, ‘고기를 한번 이로 베어 먹다가 도로 그릇에 넣지 말 것’ 등 조선시대 여성의 규제 항목은 전방위적이며 상세하다. 이러한 세세한 규칙을 감내하는 것이 부녀자의 덕목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용숙, 『韓國 女俗史』, 민음사, 1990, 85-209쪽.)

10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구비문학대계』 133-1)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정승 낱을 여자’ 유형(『한국구비문학대계』 231-8)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초행을 채리가주고 인제 마 영해들어 인제 영덕쯤 왔든 모양이라. 보이
동네 장구 소리가 뚜당당 뚜당당 그래.

“아나(여봐라).”

“예.”

“여 보교 낱.”

놓그던. 놓으께네, 새로 시집가는 신행이 그 머, 장구소리만 듣고 거
찾아갔단 말이여. 드가멀라

“어라, 여 이눔들아, 여 술 한 상 잘 채리와라.”

거 드가이, 인제 참 술 한 상 갖다놓고 잘— 먹었다. 먹고, 자기 어른도
맘대로 안돼. 어예 됐기나 워낙 참 딸이 댓장이 세니, 참 맘대로 안되고
해.

그래 갔는데, 해가 다 빠져갈 고비에(무렵에) 나오네.¹¹

신행 신부가 도중에 가마를 멈추고 내려서 술을 먹고 놀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다시 길을 나서는 모습은 손병사 어머니 설화에도 보이는 공통화소이다. 친정 부모도 딸의 기세를 꺾기 힘들 만큼 대가 센 여성은 시댁으로 조화롭게 편입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기가 센 여성은 (조신하고 순종적인 부덕과는 위배되나) 서사의 문면에서 그 ‘건강하고 강인한’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아들을 낳기 적합한 인물로 그려진다.

옛날 인제 늦요강 인제 시가서 가주간단 말이여. 해필 요기다가 나두고
사랑주인이 문앞 곁이 앉았는데. 사돈이 여 앉았그던 [손으로 문쪽을 가
리키며] 거다(거기다가) 대놓고 오줌을 누이 “왕왕왕” 그러면 머 봇물

11 ‘정승 낱을 며누리’,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6책 479쪽.(이후 ‘대계』 7-6, 479’로 약식 표기)

겉이 “쉬” 낫는다. (그랜다) 그 시부가 하는 말이 [청중 1: 거 늦요강에
어예 소리가 귀에 나니껴?] [청중 2: 그 옛날에는 거 목화씨 넣어 가그
던.] [실제 소리를 내면서] 혀를 끌끌 차이

“혀 참, 이눔들이, 머 대감 놀(날을) 보지가 그만도 안되까바.” [일동:
폭소]

그래, 그래고 인제 머하고, 그래 인제 안동에서 찻 정승 그거를 갖다
가… 그이 첫 정승이 글로 낫네. 여자도 워낙 덕지 시고¹² 하먼 [청중:
덕지 그거는 왈패지] 큰 자식 낳는 모양이래.¹³

시집가는 새색시는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일에서도 조심스러워야 하기에 신행
가는 가마 안에서 오줌 누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요강에 목화씨를 넣어 갖
다. 요강에서 “왕왕왕”, “쉬” 하는 소리가 났다는 구연자의 말에 청중이 “늦요강
에 어예 소리가 귀에 나니껴?”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정
승 낳을 새색시는 시아버지가 문 밖에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음장치 되지
않은 요강에 붓물 같은 오줌을 갈긴다. 청중은 “덕지 그거는 왈패지.”라며 기가
센 색시의 행동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아버지가 혀를 차며 나무라자, 색시
는 “대감 놀 보지”라 그렇다며 응수하고, 구연자는 그래야 “큰 자식 낳는 모양”이
라며 옹호한다. 아래 손병사 어머니 이야기에서도 훌륭한 자식을 낳을 재생산 신
체 기관으로서의 가치가 여성·며느리로서 시아버지·시어머니와의 위계나 관계,
사회적 관습적 질서를 뛰어넘어 수용됨을 알 수 있다.

그 미느리가 말이야 행동이 아주 고약해여. 난잡하든 안하지만 장 거어
하든 그런 번쩍스런 행동을 하고.

한날은 가마이 본께 말이지 그 미느리가 요시로 말하마 낮잠을 자는
데 사라마다도 없고 잇날에 훌치마만 입고 잔단 말이라. 그래가주 고만
훌치마 휘떡 걷어 부치가지고 아랫도리를 전부 다 내놓고 말이지. 낮잠

12 고집이나 뱃장이 센 것. (원문 주석)

13 ‘정승 낳을 며느리’, 『대계』 7-6, 479.

을 자다 본게 파리가 자꾸 달라들어여. 그계. 정통에 말이지, 시아바이가
가마이 본게 같잖단 말이라. 미느리 보긴 봤는데 저기 사람은 괜찮은데
저래가주 되겠나. 싶어서. 그 미느리가 그래가 있으이 말할 수도 없고.
그래 내주 미느리 깬 뒤,

“잠을 자도 말이지 그래 난잡하기 그래 자면 되나?”

“어허 어때요 병사 날 궁긴데(구멍인데) 뭐 손병사 날 궁긴데, 괜찮
다.”

그래가주 그 미느리가 손병사를 낳더래여.¹⁴

아무데서나 함부로 낮잠을 자고, 속옷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훌치마도 무색하게
아랫도리를 내놓고 있는 모습은, 더위도 치마를 걷지 말라는 규범 항목을 떠올리
지 않아도 상식적 예의범절에 어긋나 있는 “고약”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저래서 되겠나 하고 염려하지만, 화를 내거나 쫓아
내는 것이 아니라 “같잖”은 정도로 이해하며 “사람은 괜찮”다고 애써 무마한다.
며느리라는 신분에 알맞은 격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그 됃됨이는 인정한다는
태도다. 며느리로서 지녀야 하는 것, 며느리로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서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아들을 낳는 것이다. “병사 날 궁기”라면 여타의
오점은 다 용인되고 봉합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 서사는 규범에 맞는 여성
의 순종적 덕목에서 ‘벗어난’ 자질의 비범함에 더 주목한다.

병사, 참 할부지를 뵈을 때 마루에 어데 여름인데 누뵈슨께로 와? 여, 예
전에는 그-긴대, 큰-먹구리 곁은 긴대가 안 있으요? [김영희: 예] 긴대
가 참, 어- 그, 몸을 스치, 넘, 넘어가는데 아무런 그- 참, 스십없이, 무
슨 그곳도 없었다., 그래서 그 분 낳았던 결과가 참, 그런 부인이 태생했
다.¹⁵

14 ‘행동거지 고약한 손병사 모친’, 『대계』 7-16, 287.

15 황은주, 위 논문 부록, 16쪽.

앞의 예문에서 훌치마만 입고 조심성 없이 낮잠을 자는 며느리의 기행은 그러한 행위를 할 만한 대범함으로 해석된다. 위 예문에서는 먹구렁이처럼 커다란 지네가 몸을 스치고 가도 개의치 않는 임신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임신부는 실제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 하므로 많은 금기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지네가 달아도 꿈쩍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신체는 훌륭한 아들을 낳는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는 앞서 기행을 감행하는 신체를 용인하는 근거가 된다.

규범과 관습을 마음대로 허물고 스스로 아들을 낳을 신체임을 어필하는 이 여성을 기존 논의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주체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몸이면 무엇이든 양해될 수 있다는 결과론적 사고는 인륜과 예의, 문화를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귀결시키는 것이기에 위험한 지점이 있다. 이 설화는 그 자체로 부계 가족의 성공적 영속이 내포하는 야만성을 드러내는 서사로 사유할 수 있겠다.

2.2 효자 만들기로 도구화되는 신체의 의존성

앞서 논의한 아들 낳는 강인한 신체의 어머니와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아픈 어머니’일 것이다. 아픈 어머니는 대개 효행 설화의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효자의 효행을 유발하는 기제로만 존재할 뿐 자식과 관계 맺거나 그 행위에 반응하지 못하고 타자화’되는 경우가 많다.¹⁶ 대부분 효행 설화에서 어머니는 나이가 많거나 병들었거나 이미 죽은 상태로 등장한다. ‘효행’ 자체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효행설화는 자식의 조건이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효행 대상의 신체적 특성이 비교적 드러나는 『구비문학대계』 ‘어머니 병 고친 효자’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아 이

16 『삼국유사』 「효선」 편 초기 효행설화에서는 자녀의 효행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나 태도를 살필 수 있으나 이후 『고려사』 「열전」 「효우」 편이나 조선시대 교화서에서는 자식과의 관계나 소통의 양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부/모는 병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어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서, 효행의 대상 또는 전제로서만 나타난다. (강성숙, 「효행 설화 연구-『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효행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48집, 동양고전학회, 2012, 7-39쪽.)

이야기에서 보여주고자 한 어머니의 신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⁷

‘어머니의 병 고친 효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병’은 구체적으로 ‘눈이 뭍’(2편), ‘얹은뱅이고 봉사’(1편), ‘얹은뱅이’(1편), ‘곱추’(1편), ‘반신불수’(1편), ‘피부병’(1편), ‘구렁이 허물’(1편), ‘통통 부음’(1편)으로 나타나며, 다른 설명 없이 ‘아프다’거나 ‘중병’ 또는 ‘죽을병’에 걸렸다고 표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8편). 증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이야기 속 어머니는 모두 거동이 불편해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서모가 병이 우에 들었는고 하이까네, 온 몸이 두껍지라. 뚜껍지. 저 저 저 똑 나무 뚜껍지매이로 [손으로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온 천지 이레가 들었는데, 천지에 마 마 아들이, 인자 서모 몸에서 난 아들이 업고, 어무이 업고서러, 형이인데 빼끼갖고(마음이 상하여) 업고, 우리 어무이 내가 한번 고쳐 보겠다고, 업고 저어리 마 팔도강산 약 구하러 간다고 하이까네,¹⁸

즈 어머니가 병들어 각구 사 년 동안얼 반신불수가 돼 가지구 방이 들어 얹어 똥 오줌얼 싸두 즈 어머니 병얼 목 고친다 그겨여.

그래 인제 변작이 아우가 있넌디. 그 아우가 즈 어머니 병얼 고칠라구 애럴 써두 또 목 고쳐. 그래 재산 좀 있녕 거 다 웁애빠리구, 병 고칠라다

17 ‘어머니 병 고친 효자’ 이야기 대상 목록(총17편)은 다음과 같다. ①어머니 병 못 고친 편작(대계 4-2 362), ②어머니 병은 못 고친 편작(대계 7-8 757), ③어머니 병은 못 고친 편작(1)(대계 7-13 78), ④천하명의 편작(대계 8-13 126), ⑤편작(대계 2-4 782), ⑥어머니 병 고친 효자(대계 7-8 306), ⑦어머니 병 고친 사슴(대계 3-1 446), ⑧어머니 병 안 고친 명의원(대계 5-5 156), ⑨효성으로 고친 어머니의 병(대계 5-5 510), ⑩어머니 병 고친 화타(대계 3-2 285), ⑪이석환의 침술(대계 7-4 243), ⑫명의 유희태(대계 8-3 446), ⑬유명한 의원(대계 8-4 233), ⑭신연당 유의태(대계 8-6 486), ⑮유의태 의원도 못 고치는 병이 있었다(증보대계 8-11 G002+AKS-UR20_Q_2405_1_04A), ⑯유의태 약물통의 효험(증보대계 GUBI+04_08_FOT_20120116_PKS_KGS_0001), ⑰명의 유희태(증보대계 8-14 G002+AKS-UR20_Q_2189_2_05A)

18 ‘천하 명의 편작’, 『대계』 8-13 126.

병언 목 고치구 죽게 됐어. 즈머니가. 죽게 됐으니까 말단에 가서 즈 어머니가,

“네가 내 병을 고칠라구 그케 애를 써두— 목 고친다. 나는 죽는다. 죽게 생겼으니까, 바람이나 좀 쐬구 죽으야겠으니까 나 좀 억구 저— 산 날 맵이 워디가서 그 공기나 좀 쐬 대구.”¹⁹

그 자기 큰 아들이, 참 시방은 의사라 카지만 이친엔 의원이라 카지. 의원이 큰 의원이라.

자기 어머니가 앉을뱅이가 되가주고 들았었는데 약을 모리는 건 아이지요. 약을 아, 흰해기 알아도 그 약을 구할 도리가 없어. 약이 머어나 하면 봉(鳳)을 잡아가지고 산말랭이 가서 꾸우 먹고, 이전 해골에 물 고인 거 그 놈을 들고 마시만 직효인 줄은 아나마 그걸 구할 수가 없네. 구할 수가 없으니 도리 없잖아.

그래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상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이리(이렇게) 일만해묵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 저거 형을 자꾸 책망을 하고, (...) 그래 한날은 저거 어머니가 작은 아들떠로(아들에게),

“내 이 참간²⁰ 이래 들았았으니 갑갑해서 전딜 수가 없다. 업고 니 업고라도 오데 바람을 좀 쐬이라고(쏘여다오).”

아, 그러이 작은 아들이 업고서로 참 사방을 이리 들어댕기다가,²¹

‘어머니의 병 고친 효자’ 이야기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편작’, ‘유이태’, ‘화타’로 대표되는 용한 의원이지만 실제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는 행위를 하는 인물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명의의 동생이다.²² 어머니를 낫게 할 약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약을 구할 방도가 없어 아무것도 못(안)하는 형 ‘편작’ 대신, 동생은 어

19 ‘어머니 병 못 고친 편작’, 『대계』 4-2 362.

20 ‘참간’은 무슨 말인지 확실치 않다. 뜻은 늘, 항상인 듯하다.-원문 각주

21 ‘어머니 병 고친 효자’, 『대계』 7-8 306

22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약이 되는 음식을 드리는 행위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1편(『대계』 7-13 78) 있지만, 그 외에는 모두 어머니를 업고 길을 나서는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머니가 죽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어머니를 들쳐업고 집을 나선다 (17편 가운데 12편). 어머니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가기를 청하는 경우는 17편 가운데 3편 정도가 발견된다.²³

아픈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바깥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 병 때문에 바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인지,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병은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다님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은 분명하다. 아들은 약을 구할 목적으로 어머니를 업고 길을 나서지만 정작 약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는 목이 마르니 물을 구해오라거나 닭이 먹고 싶다는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움직일 뿐이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우연히 발견한 물과 고기가 사실은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었는데, 이는 효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서사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움직여 효행을 하게 만드는 직접적 동인이며, 아들의 효행은 어머니의 치유로 완성된다. 하지만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병을 해소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 업히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의존적 존재이다. 아들은 구하기 힘든 것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어머니의 청을 무조건 받아들여 수행함으로써 ‘편작’보다 나은 ‘효자-명의’가 된다. 여기서 어머니의 병든 신체는 효자 만들기를 위한 도구로써 치료약의 효험, 구약(求藥) 과정의 기이함, 효행의 대단함을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다. 어머니의 병이 지닌 불활동성은 바깥 세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이후 서사는 어머니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3 가족주의의 무한배제, 통제되는 신체

‘어머니는 남’, ‘엄마는 남이다’, ‘여자는 어머니부터 남이다’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여자가 비밀 누설해 망하기(아내는 믿을 수 없다)’ 유형에 속하는 설화의 제

23 ‘어머니의 병 고친 효자’ 이야기 17편 가운데 2편은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어머니가 원하는 것(닭고기, 사슴)을 구해주고 병을 낫게 하는 경우다.

목이다.²⁴ 남편과 아들이 공유하던 가족의 비밀(남편이 실수로 이웃의 아이를 죽인 사실/남편의 시신을 우물에 넣으라는 유언)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아내)는 수년간 이 비밀을 지키다 자신을 ‘남(외인)’이라 치부하는 아들(남편)의 태도에 분노하고 결국 이를 발설한다. 그래서 ‘어머니는 남’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여자라 카는 거는 고만치 가볍단 말이 그런 데서 나왔는기라. …… 여자는 말을 못 참기 때문에 그래서 오줌을 못 참는다 안 카나.²⁵

‘어머니는 남’이라는 인식은 서사 내부에서뿐 아니라 위와 같은 화자의 논평에서도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화자는 여성이 애초에 그 속성상 참을성이 부족하므로 말을 참지 못하고, 그 때문에 오줌을 참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이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 요도 길이가 짧고 근육의 양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²⁶. 성별에 따라 다른 신체적 특징을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어머니를 배제하는 정당한 이유로 만드는 논리는 어머니(여성)의 발화를 통제함으로써 남성 중심의 가족을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어머니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실제로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여성의 가벼운 신체를 통해 나온 것이어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말’이 남성 가족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 어머니는 비밀을 공유해서는 안 되는 ‘남’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편견만 증폭

24 ‘여자가 비밀 누설해 망하기 유형’은 풍수설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고(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1-227쪽.), 여성 주체의 소외 문제와 연관해 지배이념 체제 문제를 거론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김영희, 「비극적 구전 서사의 연행에서 나타나는 비밀 폭로자로서의 여성 이미지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267-324쪽.), 여성의 말하기 방식의 의미를 살피는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여자가 비밀 누설해 망하기 유형’ 설화 목록은 강성숙, 『설화 속 여성의 말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2쪽 참조.

25 ‘호식기 면치 못한 신랑’, 『대계』 7-5 158

26 여성의 요도 길이는 3~4cm 정도이며 남성은 약 20cm 정도이다. -서울 아산병원 인체정보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body/bodyDetail.do?bodyId=121>

될 뿐이다.

‘여자는 남’이라는 인식은 ‘여자가 비밀 누설해 망하기(아내는 믿을 수 없다)’ 유형에서뿐 아니라 ‘친정부모의 뒷자리 뺏는 딸’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풍수와 관련한 서사에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풍수사상은 좋은 땅에 집터를 정하거나 조상을 묻으면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근거하며, 조상을 길지(吉地)에 묻으면 그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 미쳐 후손이 잘된다는 하는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과 연관이 있다. 문제는 풍수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풍수설화가 남성 중심의 욕망을 다루어 가부장제 사회의 영속을 꿈꾸는 이야기라는 점이다. 철저하게 남성중심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여성이 도구화되고 대상화되는 것이 사실이다.²⁷

머시가 저거 아들이, 아들이 사 형제고 영감 할마이 이래 사는데, 인자 죽을 임종시가 딱 됐어. 돼 놓이 하는 말이,

“아부지요 아부지요, 이야기로 하고 가시쇼.” 고 하이까네.

“아, 외이(外人)이 있는데 어예(어찌) 얘기로 하겠노?”

[청중: 맞지러.] 이카그덩.

“그래 외이이 능기요(누굽니까)?”

크이. [청중: 지거매다.]

“니거 엄마 아이가?”

[청중: 글치(그렇지). 그 외이이지러.] 그라그덩.

그래 지거매가 그 소리 듣고 나와뿌렸그덩. 나오이 하는 말이,

“내가 죽그덜라, 이 동네에 묵는(먹는) 우물에 내 머리를 비다(베어다) 열어라.”

[청중: 아하.]

“열어야 그래 내, 내가 잘 된다.”

잘 되며 인자 그 자석이 잘 돼그덩.

27 풍수발복설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대상화 문제는 강성숙, 「풍수설화를 통해 본 남성 발복(發福)의 양상과 그 의미」,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월인, 2001, 41-70쪽 참조.

요 이미가(母가) 나와가 가마 들었어. [청중: 듣고 이제 말은 난다.] 외이이라 소리 들으이 그게 안타깝고, [청중: 그캐.] 좀 앤 됐그덩. 앤 돼 놓이, 요래 들으이까네 그카그덩. [청중: 지거매가. 옛날부텀 본대(원래) 아바이카는 해도 어마이칸 하지 마라 그그덩.]그래.

그래 비가, 머리로 비가주고 동네에 저거 아부지 유연한 대로 비-가 명지(명주)에다 싸가주고 마 웅굴(우물) 속에다가, 많은 인가이(人間이) 묵는 웅굴에다 열었다 말다. 열어 놓고. 열어 놓이, [목소리가 높아진다.] 웅굴에 물이 빈덕(변덕)을 하네. 그리이, [큰 소리로] 별-게졌다가 푸-래졌다가 마 둔갑을 하그덩. 이라이 동네사람이 마.

“이 웅굴물이 와 이로(이렁노)?”

꼬 야다이(야단이) 나네. 나이.

내그로(내도록, 여태까지) 암(아무) 말도 아 하고 있다가 마 아들하고 마 맡아들하고 째을 했어. [청중: 째을 해가 인자 어마이 다 칸다.]응, 째을 했어. 째을 하이,

“아이고, 저놈우 자석 보소. [외친다.] 보소. 동네사람 다 들어 보소. [청중: 고 뱀어가.]저거 지거 애비 죽어가주고 두(頭) 비가주고, 웅굴에 갖다 열어 나가, 그래가 글타.”

이카그덩.

아이고 그래가 마,

“해명 글치.”²⁸

고, 동네사람이 마 운동을 해가주고 마 물로 폰다.

물로 푸고 졸우이까네. [탄식하듯이] 세사아!(世上에) 요이(龍이)돼, 요이 돼가주고 날개가 다 다 생게가(생겨서) 득천할라 크더란다. 그래 시퍼러이 마 마 앤 죽어뵈나. 그 직구직이(집구석이) 쫄딱 망했대요. [청중: 맞다. 그래 맞다.]

[차분하게] 그래 여자라 크는 거는 참 이거는 참 사물(邪物)이고. [청중: 그캐 어마인 남이라 췌다.] 그칠(그렇게) 문뎌 게 여자라요. [청중:

28 하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원문 각주

어마인 남이라 크이.] 그래. 남이라꼬. [청중: 어마인 남이라.]²⁹

‘어미는 남이다’ 설화는 ‘어머니가 남인 유래’를 밝히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 듯 보이나 실제로는 어머니를 남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에 생긴 사례를 보여주며, ‘어머니는 남’이라는 애초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 이야기다. 청중들 역시 이야기를 구연하는 중간중간 이야기판에서 ‘어머니는 남’이라는 인식에 동조한다. 풍수 설화의 향유층은 남성이 우세한데, ‘여자는 남’이라는 인식에 동조하는 태도 역시 이러한 향유층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의 연결은 아버지가 명당에 무덤을 쓰는 행위로 더욱 강화된다. 아버지의 기운을 받는 자손(아들)은 명당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부계 가족의 번성과 영속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러한 의심에 합리적 근거는 애초에 없었다. ‘어머니는 남’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가족의 번성이라는 명목 아래 어머니를 배제하는 일을 당연하게 만든다.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여성은 가부장적 부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고, 나아가 가부장 사회의 지속에 위해가 되는 존재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어머니는 남’이라는 인식은 어머니의 배제를 낳고, 이러한 배제는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기운을 받아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또다시 ‘어머니는 남’이라는 관념을 강화하는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이 설화는 사실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 가족이 ‘살해’라는 반윤리적 행위를 목인하는 과정으로 성립됨을 폭로하는 서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는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냈을 뿐인데, 남편과 아들은 진실을 말하는 어머니를 ‘남’으로 타자화한다. 부자는 가문 존속을 위해 살해라는 비윤리적 범죄를 은닉하는 부정의한 연결체인 것이다. 자기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오히려 죄 없는 어머니를 겨냥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익숙한 방식이다. 메타적 차원에서 보면 이 설화는 부계 가족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이를 폭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 ‘어미는 남이다’, 『대계』 7-3 462

3 어머니의 신체와 징후적 문제 제기

설화 속 어머니의 신체는 아들 낳는 몸으로 칭송되거나 아들을 효자로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가족주의로 연결되는 구성원으로부터 배제되는 방식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겠다. 가부장 사회의 권력관계는, 통제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어머니의 신체를 구성해왔다. 설화 속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실현할 수 있는 여지는 찾기 힘들다.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어머니의 신체가 갖는 한계를 짚어보고, 어머니의 신체가 가부장제의 기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설화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3.1 아들 낳는 신체의 무한 용인과 가부장제의 자가당착

앞서 훌륭한 아들을 낳는 어머니의 신체가 드러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정승 낳을 새색시나 손병사 어머니가 보여주는 탈규범적 행동이 용인되는 이유를 살폈다. ‘손병사 어머니’ 설화에서는 훌륭한 아들을 낳아 가부장제 권력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기행을 감행하는 여성의 신체도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훌륭한 인물을 낳을 여성은 “대인”이기에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함을 지니고 있으며, 그 여성의 남다름을 일상적 윤리로 규제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승, 병사를 낳을 만한 여성을 긍정하면서도 염려하는 설화 속 시아버지의 시선이나 자유로운 처신을 하는 여성에게 여성답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설화 구연자의 연행 양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설화 안팎에서 여성성의 규범적 인식에 대한 균열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반응이며, 그 자체로 여성성에 대한 정상적 이해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징후로 읽을 수 있겠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성기)를 드러내는 부주의함에 대해 “손병사 날 궁긴데 괜찮다”라고 대변하는 것은 ‘훌륭한 아들만 낳으면 무엇이든 용납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기인하는 태도이다. 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인간관계조차 대를 잇는 역할로 축소될 때 나타나는 무례함, 야만성의 징후로 보인다. 여자는 며느리가 되어 아들만 낳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야만 그 자체이며, 이야기는 이러한 사유

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아버지에게 ‘보여진 몸’을 아랑곳하지 않는 며느리의 행위는 자유롭거나 담대한 것이 아닌 ‘무례함’이며, 그것을 허용, 승인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아들 낳기(human making)’라는 의무나 기대야말로 ‘비-인간적’인 것이 아닌가를 사유할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체라면 일탈적 행동마저도 용인받는다든가 이러한 야만적 인식이 가부장제 사회가 용인하는 규범적 신체의 조건을 확장하는 자가당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규범과 관습을 마음대로 허무는 행동을 용인하고 아들 낳는 기계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무례와 야만이 정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아들만 낳으면 다 된다는 반-문명적 폭력이 된다.

다음 예문은 손병사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 양상에 대해 전승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귀신의 존재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강인한 어머니는 자식에게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장개를 들여 가지고 서당에 공부를 시키는 기라. 공부를 시키는데, 내외간에 도저히 한 방에 못 가게 하는 기라. 자기 모가(어머니가) 공부를 갖다가 과거(科擧) 하도록은 도저히 내외간에 한 방에 못 가거로 하거든.

그러니 참 서당에서 댁이(아내가) 보고 짚어 오 봐야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가는 기라. 한 번은 가만이 생각하니 말이지, 종놈을 시킨 기라. 사다리로(사닥다리틀) 놓으라 캔 기라. 밤에 와 가지고 이쪽 저쪽 사다리를 놓아 가지고 밤에 들어가 가지고 참 자기 댁을 만나 가지고 하룻밤, 하룻밤이라야 조금 잤지. 도망가야 되께.

몰리(모르게) 그 뭐 그래 그 날부터 태기(胎氣)라. 그 손병사 손자 아인가 말이야, 응, 그래 인자 저거 모하고 병사가 하는 말이 말이야,

“내 자식은 그 방에 들어간 일이 없는 머리, 이거는 종의 자식이다. 간부 자식이다.”

갖다가 덮어 씌와(쓰게 해) 뺐는 기라. 씌와니 자기 아들이 가만, 병사

아들이 가만 생각하이, 서글프도 안 하거든.³⁰ 분명히 내가 낡 저거 내 아들인데, 그래 사실로 턴다.

“사실, 내가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하룻밤 같이 잤단 말 이야.”

그라몬 그 애가 컸으몬 다행인데 그냥 죽어 뻘다 이기라. (...)

아침 밥상을 들고 오는데, 그래 종년이 들고 온단 말이야. 자기 댁이 못 들고 오고. 부모 엄명에,

“어데 못 된 기 들고 와?”

말이야. 그래 참 저 인자 자기 댁이 들고 오이께 참, [하던 말을 고쳐서] 종년이 들고 오니께 다부 다시 돌려 보냈는 기라. 또 드가 가지고 또 밥상을 또 애기(며느리로) 들고 오라 카이께 들고 갈 수 있는가? 어른이 명령이 나야 들고 가지 말아야.

또 종년이 또 들고 갔는 기라. 또 밥상을 후차(쫓아) 보냈는 기라. 후차 보낸께, 세 번 만에 자기 인자 처가 할 수 없으니 밥상을 들고 가인께, 문지방서 눈이 동그래 죽어 뻘어. 그래서 손병사가 끝이 없어. 뒤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자손이 없어. [청중: 그래 이전에 부모가 너 무 그라몬 안 돼.]³¹

‘손병사 일화(1)’에서 손병사 어머니는 귀신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낸 자식의 임신 양명을 위해 아들에게 과거공부를 시킨다.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는 합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만, 아들은 몰래 아내를 만나 잉태시킨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손병사 어머니는 아들이 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며느리가 훼손했다고 의심한다. 아들의 해명으로 며느리는 누명을 벗었지만, 결국 태어난 손자는 죽어버린다. 손병사 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상을 직접 들고 오지 않는다면 여러 번 밥상을 물리고 호통을 쳤는데, 결국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들어가다 놀라 죽어버리고 만다. 결국 손병사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게 되었다.

30 서글프기 짝이 없거든. -원문 각주

31 ‘손병사(孫兵使) 일화(1)’ 『대계』 8-7 588

손병사 어머니는 ‘손병사’라는 훌륭한 아들을 낳았기에 칭송되는 존재였다. 실제로 손병사 이야기의 전승자 대부분이 병사 어머니를 훌륭하고 대범한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기존의 훌륭한 어머니의 규범적 기준을 확장하면서까지 인정한 강인한 어머니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위의 예문에서처럼 과도하게 자식의 삶에 개입하는 모습은 서사 내부에서 절손의 결과를, 이야기판에서는 과도한 부모 개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초래한다.

가부장적 남성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적 방편으로 활용되는 강인한 어머니 신체는 결국 아들/며느리의 욕망과 감정을 살피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대를 이을 훌륭한 자손과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 자기 자식만을 위하느라 며느리의 존재 조건에 대해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그가 편협한 가족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손병사 어머니가 없앤 사당이나 무당, 고목 등은 마을공동체가 신앙하던 대상이었을 것이다. 공동체가 기반으로 하던 가치 체계는 손병사 어머니를 인정하고 포상하는 가문 중심의 유교 권력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손병사 어머니를 만들어낸 권력 질서는 규범적 어머니 신체를 확장하면서까지 가부장제의 연속성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결국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가족중심주의의 실체를 드러내며 다음 세대와의 연결에 실패하게 된다. ‘손병사 어머니’는 결국 가부장제가 스스로 자가당착을 드러내는 장이라 하겠다. ‘무례’를 ‘대범함’으로 승인받은 손병사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과도하게 아들 부부를 통제하다가 결국 며느리를 죽게 만드는 ‘결과론적 괴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화를 가부장제의 허구적 연속성의 문제를 징후적으로 드러내는 작품군으로 볼 수 있다.

3.2 돌봄(돌보기/돌봄 받기)에서 놓여나기, ‘편협한 가족주의’ 벗어나기

앞서 2장에서 효행설화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병이 주로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나며, 어머니 신체는 아들 효행을 위한 전제, 도구로 기능한다고 파악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철저히 효자인 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그려진다. 그런데 ‘어머니의 병 고친 효자’ 이야기는 아들의 효성뿐 아니라 효성의 결과로 나타난 어머니의 치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물을 갖다 주이께 훌쩍 다 마시려고.

“야야 내 곤하다. 좀 누버실란다³².”

“그럼 주무시소.”

싫건 자서 뿌드득이 다리를 쪽 피민서 눈도 퍼뜩 떠서,

“허허 이게 웬일이고 울 어무이 눈 떴네요. 인자 고마 가입시다.”

“말라고 업히노 눈뻘지 다리 다 떨어져서 있는데 내가 말라꼬 업히,
걸어가지.”

걸어서 집으로 왔능기라³³

“너는 엇저녁부터 사뭇, 나는 떡구 인저 배두 부르구 병이란건 올건청
청이여. 그래 내가 너를 업구 인저 가야되겠다.”

이여. 그래 이리구 얼마나 나 참[청중: 웃는다]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딴
어? 일변 자시구 일변 괜찮으니. 아 자꾸 자기 아들을 자꾸 업자는겨.

“애 너 업혀라. 내 기운이 아주 팔팔해서 그냥 못 걸어 가겠으니께 너
업구 가두 내 충분히 걸어간다.” (…)

어떻게 빨리 걷는지. 뭐 치맛, 치맛바람이 참 펄렁한단 말여. (…)

“이제 따라 땡길 필요 없다. 이제 병자두 아닌데 구찮게 왜 자꾸 따라
땡겨? 집으로 가자.”

아 그래 집으로 오는 길이란 말여. 그냥 빠른 걸음에 그냥 뭐 팔을 내
젓으며 가니께 아 거진 자기 집에 인제 다 와 간단 말여.³⁴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던 어머니가 약을 먹고 낮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업겠다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자신이
아들을 업겠다며 아들에게 업히기를 자꾸 권하기까지 한다. 어머니에게 그동안
가장 절실했던 것은 아들의 돌봄에서 놓여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들의 행동이

32 누웠을란다 - 원문 주석

33 ‘이석환의 침술’, 『대계』 7-4 243

34 ‘어머니 병 고친 화타’, 『대계』 3-2 285

효성의 발로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의존했던 시간이 마냥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의 등에 업혀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약을 얻어 낫기 전까지 어머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의존적인 상태로 머물렀다. ‘어머니의 병 고친 효자’ 이야기에서 병든 어머니는 여타 효행설화에서처럼 효행의 대상으로 도구화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등에 업혀 아들에게 요구만 하던 어머니는 병이 낫게 되자 이제 치마를 필력이고[“치맛바람이 참 필령한단 말여.”] 팔을 내저으며[“그냥 뒤편을 내젓으며”] 혼자 걸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어머니의 병 고친 효자’ 이야기에서 어머니가 애초에 어떻게 해서 병이 낫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은 없지만 어머니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므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병의 원인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병인은 ‘개로 환생한 어머니 여행시킨 아들’ 설화와 공통되는 지점이 있다. ‘개로 환생한 어머니 여행시킨 아들’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고 집안살림만 하느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개로 환생한다. 세상 구경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던 어머니가 개가 되는 이유는 ‘내 것’, ‘내 자식’만을 위해 지독하게 살림만 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문면에서 이는 “죄”로 표현된다.³⁵

어머니가 자식 키우느라 세상 구경을 못하고 죽었는데 저승에서 세상 구경도 못했다며 받아주지 않고 개로 환생시켜 세상 구경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채록자: 왜요? 죄가 되나요?) 그렇지 그것이 죄가 되지, 세상 구경 안 한 것이 죄야.³⁶

자식을 돌보느라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무르는 어머니는 사회적·공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자기 자식과 가족만을 위한 편협하고 왜곡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식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문

35 ‘개로 환생한 어머니 여행시킨 아들’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문제는 김혜미, 「설화 <개로 환생한 어머니 여행시킨 아들>에 나타난 어머니의 문제와 그 해결과정」, 『고전문학과 교육』 제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285-306쪽 참조.

36 ‘돌아가신 어머니 여행시킨 효자’, 『대계』 4-5 490

제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 맺지 못하고 남에게 무언가를 나누어주거나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를 “죄”라고 규정한 것이다. 자녀 양육과 가사에 힘쓰느라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어머니의 신체는 자식에게로만 연결되려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설화는 편협한 가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호혜와 공유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이, 병들고 죄를 받아 변한 어머니의 신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개로 환생한 어머니 여행시킨 아들’ 설화 구연자는 대부분 노년 여성인데, 이들은 자신과 이야기 속 어머니를 연결시키며 이야기를 통해 자기 성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정 내에서 주어진 어머니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설화의 언표는 여성이 스스로의 삶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어머니를 가정 내에 가두고 아들 낳는 도구로 기능하게 만들어 병들고 죄짓게 한 세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3.3 연결되지 않음으로 연결되기

앞서 2장에서 풍수설화가 남성 중심의 욕망을 다루며, 가부장 사회의 영속을 다루는 이야기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관점이 ‘어머니 폭로로 잃은 명당’ 설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여자는 남’이라는 인식을 구성했다고 하겠다. 아버지의 뒷 자리를 명당에 써 아들에게 그 기운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풍수사상의 기획은 가족 간, 그리고 공동체와의 이해가 상충할 때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 역시 설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설화에서 어머니는 편협한 가족 이기주의가 성공하지 못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남성 위주의 가족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그렇다면 가부장제 가족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지 않는 풍수설화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진묵대사’ 혹은 ‘백송대사’와 그 어머니의 묘에 얽힌 이야기는 가부장제의 영속을 기도하는 여타 풍수설화와는 차별되는 지점이 있다.

옛날 이 고장에 인저 백송대사라는 중이 있었다. 근디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남편(남편)은 일찍 이별하고 손(자손)이 없었던겨. 인제 손을 보

기 위해서 송씨 가문으로 개가를 했던겨. 그때 아들을 하나 난게 그게 바로 벽송여. [조사자: 네. 벽송대사.]

(...) 그 시절에는 아, 뭐 양반 상놈 차별이 심했잖아? 그래서 아버지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같이 참석치도 못하고 인저 그런 관습이 있어갖고, 그래서 인저 인저 그 구박이랑게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당게 잉. [조사자: 예 그렇죠. 그 옛날에.]

그참 나쁜 건디, 그래 인제 그 벽송이란 사람이 그 어머님 품을 떠나서 집을 나와갖고 깊은 산에 수도를 떠났던겨. (...)

아, 근데 자식 하나 있던 그 아들이 집을 떠났으께 그 어머니는 사방을 찾아헤맸던겨. 그러다가 거기서 벽산에서 수도하는 아들을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라기를 빌었던겨여. 근디 거기서 한번 굳은 결심을 한 벽송대사가 가기를 거절한거지. 예 그래서 인저 아들하고 작별을 하고서 약속을 했던겨. 그 어머니가. (...)

어머니가 아들 만날 때마다 아들 하나 있는게 중이 돼갖고 수도했지만, 내 후손이 끊어졌으니 슬프다 하면서 아들보고 한탄을 했던겨. 그때마다 벽송대사가 알기를,

“어머니 염려마시라.”고.

“자손이 없더라도 그 뭐 한탄할 것이 있냐?”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했던거지. (...)

무덤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정월 보름날 또는 팔월 보름날 두때말여 잉. 그 성찬을 차려놓고 아무라도 거기 가서 인제 향불을 피워놓고 제사를 지내면, 아! 일년동안에 병도 없고 운수대통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무덤 위에 있는 풀을 뜯어갖고 약을 하면 병에 신통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

지금 수백 년 지났지만 그 벽송대사가 예언한 대로 향불이 그치지 않고 계속 피고, 그 주민들은 거길 갖다 명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고 그런거지.³⁷

37 ‘백송대사와 어머니 묘’, 『대계』 5-3 530

벽송대사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다른 가문으로 개가를 해 벽송을 낳았다. 서자로 태어난 벽송은 차별대우를 받다가 결국 출가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출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후손이 끊어졌다며 슬퍼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벽송은 어머니가 오래도록 흠향받을 수 있는 명당에 묘를 썼다. 이 명당을 이르는 명칭은 각편마다 차이가 있지만, “철 년 무자손(千年無子孫)에 철 년 영화지(千年榮華地)”(『대계』 6-3 488), “천년지행화지지”(‘진묵대사 어머니 묘소와 물고기 살린 이야기’ 『증보대계』 전북 김제시 서암4), “무자손천년향화지지(無子孫千年香火之地)”(‘진묵대사 어머니 묘소’, 『증보대계』 전북 김제시 검산동), “천년지향”(‘진묵대사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묘소와 성모암’ 『증보대계』 전북 김제시 만경읍) 등 대체로 ‘오래 영화를 누리고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벽송대사는 출가 수도승이므로 후손을 통해 가계를 이을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위해 자식이 없어도 영원히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뒷자리를 잡아준다. 자손이 없는데 뒷자리를 써서 누릴 수 있는 복록은 무엇이며, 이러한 복록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까. 풍수사상의 동기감응론은 명당의 기운이 혈연으로 연결된 이들에게 감응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벽송대사에게는 자손이 없음에도 명당을 찾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어머니를 위해서다. 그렇다면 어머니 명당의 기운은 누구에게 연결되는 것인가. 자손이 없는 이에게 영원히 영화로울 수 있는 조건은 자손이 아니더라도 언제까지나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 년 동안 무탈하고 운수대통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 벽송 어머니에게 성찬을 올리고 향불을 피운다. 명당은 ‘무덤에 난 풀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무덤에 가 절하면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을 현실화하는 장소인 것이다.

벽송대사의 어머니는 혈연으로 이어진 자손에게서 제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결국 병을 치료하고 소원을 이루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흠향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 명당은 수많은 이들의 기도처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의 신체(무덤)와 기도하고 추모하는 이들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따라서 이 무덤은 액운에서 벗어나 복록을 누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애초 편협한 가족중심주의의 이기적 욕망을 실현하며 어머니마저 배제해온 풍수사상의 작동 기

제는 벽송에 와서 그 혈연의 연결을 끊고 모든 이와 연결되는 공유지의 형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벽송대사 어머니의 신체는 가부장제의 기획과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생명력을 얻게 된다.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 부계혈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벽송이 태어났지만 그는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 아들과 딸, 적자와 서자의 끝없는 구분과 차별을 낳는 분열적 세계에서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 벽송의 출가는 자신을 둘러싼 폭력적 세계에 대항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자신과 그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수많은 다른 이들을 연결하면서 대안적 공동체를 기획해낸다. 이 설화는 가부장제 연속성 구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어머니의 신체가 연결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4 결론

본고는 연결신체 이론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구비설화에 보이는 어머니의 신체에 주목해 모성 또는 모성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위반하는 설화 텍스트 속 여성의 태도, 말, 관계를 살펴, 이들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를 들여다보고 설화 속에서 해석적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구비설화에서 어머니의 실재가 구체적 신체로 구현되는 방식은 가부장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용인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다양한 신체를 산출하고 통제하는 규범적 강제는 어떤 신체가 더 중요한지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서사 안팎에서 가치 평가를 내린다. 본고는 구비설화가 어머니의 신체를 어떻게 용인하고 배제하는가 살피고, 어머니의 신체를 구성하는 규제적 규범의 자가당착을 발견해냄으로써, 탈규범이 아닌 대안적 신체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구비설화에서 용인되는 어머니-신체는 훌륭한 아들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적 모성(여성)성의 틀을 벗어나는 형태까지 허용된다. ‘손병사 모친’ 설화에서 보이는 강력한 어머니가 이에 해당했다. 두 번째

로 제한적으로 용인되는 어머니-신체는 효자 아들을 만들어내는 도구적 신체로서의 병든 어머니였다. 효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병든 어머니 신체는 딜레마 상황에서 효성의 진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이용되었다. 세 번째 ‘어머니 폭로로 잃은 명당’에서 보이는 어머니-신체는 가족주의에 위협이 되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비난과 배제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어머니의 올바른 신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화는 규범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를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모순되고 무리한 기획의 정황을 노출하기도 한다. ‘정승 낳을 며느리’ 이야기와 ‘손병사 모친’ 이야기는 아들 낳기에 대한 의무와 기대가 얼마나 폭력적 문화를 정당화하는지를 드러내며, 효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대상화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수용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어머니는 남이다’에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속을 기획하는 가부장 사회의 문제를 폭로하고 있는데, 이들 설화는 모두 어머니의 신체를 통해 가부장의 전통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며 폭력적인 과정과 결과를 양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신체를 아들 낳는 도구로만 인정하는 태도나 돌보는 대상으로서만 제한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어머니의 몸을 제한하는 부계 혈통 영속의 기획은 이러한 설화의 존재 자체로 이미 도전받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관습화된 이러한 폭력적 태도에서 벗어날 대안 역시 설화는 제시하고 있다. 편협한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가족의 경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연결성을 모색하는 설화의 해결 방식은 가부장제의 기획을 단절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85권, 1980-1989.

단행본

김용숙, 『韓國 女俗史』, 민음사, 1990, 1-386쪽.

신월균, 『풍수설화』, 밀알, 1994, 1-227쪽.

주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역, 인간사랑, 2003, 1-519쪽.

논문

강성숙, 「설화 속 여성의 말하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5-46쪽.

_____, 「풍수설화를 통해 본 남성 발복(發福)의 양상과 그 의미」, 『우리 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월인, 2001, 41-70쪽.

_____, 「효행 설화 연구-『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효행 양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48집, 동양고전학회, 2012, 7-39쪽.

김영희, 「비극적 구전 서사의 연행에서 나타나는 비밀 폭로자로서의 여성 이미지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267-324쪽.

김혜미, 「설화 <개로 환생한 어머니 여행시킨 아들>에 나타난 어머니의 문제와 그 해결과정」, 『고전문학과 교육』 제2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285-306쪽.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어머니」, 『국어국문학』 제131집, 국어국문학회, 2002, 343-372쪽.

정경민, 「구비설화의 어머니 형상을 통해 본 모성과 여성 인식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5, 1-225쪽.

황은주, 「손병사 이야기 연구-밀양 산내·산외면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7, 1-100쪽.

Abstract

The Mother's Body and Connectedness

Kang Sungsook

In an attempt to explore and develop theories of the connected body, in this study, I focus on the mother's body as represented in folk literature. The legitimate body of the mother is one that gives birth to and raises a good son. It is for this purpose only that the mother's body may deviate from the norms of femininity as in the folktale known as "Son-byeongsa's mother". Another legitimate form of the mother's body is the sickly mother, whose ailing body serves as an instrument for training her son to becoming a good son. The ailing mother's body, which serves to reinforce the ideology of filial piety, is often used to test the authenticity and intensity of sons' loyalty and the affection for their elders. There is also the mother who presents a threat to familism, as in "The Good Gravesite Lost Due to the Mother's Exposure." This mother is thus publicly shamed and excluded for her deeds. It is thought that the plan to perpetuate the paternal lineage, which restricts the mother's body in a violent and barbaric way, has already been challenged by the very existence of these tales. The solution in the folktale, which breaks away from narrow-minded familism and seeks a new connection, can be seen as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by cutting off the planning of patriarchy.

Key words: Folk literature, mother, body, norm, tolerance, exclusion, familism, alternative body, connectivity

투고일 / 2023. 03. 15.
심사완료일 / 2023. 04. 04.
게재확정일 / 2023. 04. 11.